

국내외 가격차 해소책 강구해야

서비스·중간재 비싸 국제경쟁력 약화 … 가격차 큰 품목 개방해야

중간재 및 생산 서비스가격의 국제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독 일
섬유제품	100.0	135.2	130.3	-
펄프·종이 및등제품	100.0	95.5	79.8	99.9
화학제품	100.0	95.5	116.4	113.1
석유·석탄제품	100.0	143.2	57.5	78.9
요업·토석제품	100.0	198.9	157.2	143.6
철강	100.0	119.3	142.1	120.9
비철금속	100.0	95.5	92.9	98.3
금속제품	100.0	95.5	79.8	-
일반기계	100.0	127.3	130.1	148.0
전자·전기기계	100.0	135.2	118.0	151.7
수송기계	100.0	214.8	187.4	204.4
전기 및가스	100.0	222.8	131.8	162.7
금융·보험	100.0	334.1	296.6	81.6
부동산	100.0	1,750.2	1,114.0	366.4
운수	100.0	167.1	86.3	617.2
정보 서비스	100.0	310.3	360.9	721.3
통신	100.0	453.5	273.2	412.7

주) 한국의가격을 100으로한지수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진입규제 완화와 수입개방 확대, 기초소재 및 부품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주요품목들의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외가 마련한 「WTO시대의 물가안정 정책방향」토론회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가격차이를 감안한 물가안정정책은 거의 고려하지 않아 일부 품목의 경우 세계적으로 값싼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국제가격보다 몇배 비싼 품목이 존재하고 있는 등 물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1995/3/20>

